

# 8·15 광복절 단상(斷想)

대한민국 90년을 기리며(1919~2008)

역사에 대한 정의(定義)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역사과목이 옛날 사건의 기록으로 연도만 잘 암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뒤 역사란 과거사건이 현실에 주는 의미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임을 학자들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의미사이며 해석학입니다. 해석학은 그 자체로 순환적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성서신학에서는 이를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성서본문의 같은 사건과 교훈이 매일, 매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 현실이 늘 바뀌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성서본문을 읽는다면 그 의미는 언제나 새롭게 마련됩니다. 여기에 바로 성서의 창조적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도 한가지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변화하는 일상의 과정에서 늘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와 연계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 8·15 승전, 패전, 종전의 3중적 의미

8월 15일을 광복절 또는 해방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이 패전하고 항복한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 이른바 제 2차 세계대전의 주전국들은 이날을 승전일(勝戰日)이라 부르며 개전가를 부릅니다. 이날이 일본에게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일본은 이 날을 되새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날을 기리는 데 이 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가식으로라도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척 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 날을 종전일(終戰日)이라고 부릅니다. 패전과 항복이라는 굴욕적 용어를 꼭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종전이란 일본이 사실을 기묘하게 왜곡한 표현입니다. 같은 사건의 같은 날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고찰하면 참으로 재미있고 그 표현에 담겨진 숨은 뜻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경우, 엄밀히 말해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도 해방절도 아니라는 역사학자들의 냉철한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강점 하에서 미군정(美軍政)의 지배로 지배체제만 바뀌었을 뿐 1948년 국회사와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한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 남한은 미군정의 식민지였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 미군정 하의 경무국을 계승한 경찰의 한계

이러한 역사인식을 지닐 때에 우리는 바른 역사관으로 바른 역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부끄럽게도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하에서 경무국이 설립된 날을 경찰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기념 행사는 1948년 정부수립연도보다 3년이 앞서 있습니다. 정부도 수립되기 전에 미군정하에서 경무국 임무수행을 우리경찰의 설립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경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분명한 민족역사의식을 지닌 민주 경찰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경찰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경찰의 날, 그 기념기준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념행사가 경찰의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깊이 성찰할 일입니다.

### 1948년 대한민국 30년, 2008년 대한민국 90년

1948년 9월 1일 관보 제 1호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 명시했습니다. 당시 새로 출범한 정부는 1919년 3월 1일 기

미독립선언에 근거하여 그해 4월 11일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을 근거로 1948년을 건국 30년으로 선언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역사인식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바로 1919년 3·1독립정신을 기초로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장엄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2008년, 새 정권은 느닷없이 올해를 건국 60주년이라 설정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이른바 수구적 인사들과 조·중·동이 어이없게 우상화하는 이승만 자신도 1948년을 건국 30년이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승만이 1948년을 건국 30년이라 고백했으니 그들이 진정 이승만을 확인하고 그를 우상화하고 싶다면 그가 외쳤던 1919년을 건국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와 민족 앞에 정직한 선택이며 고백입니다. 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서만 바른 역사관이 설정됩니다.

우리 모두 새삼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8·15의 실천적 교훈을 찾고 나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